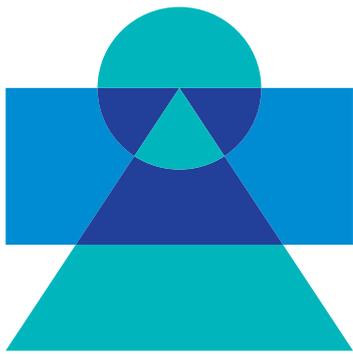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후보에게
드리는 정책 제안

인천경제 이렇게 가꾸어 주십시오



어젠다 추진과정

인천상공회의소



2007 제17대 대선후보자에게 건의하는 인천지역 10대 경제현안 과제

2010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을 위한 인천경제 10대 현안 과제

2012 제19대 총선 및 18대 대선 공약을 위한 인천경제 주요 현안 과제

2014 민선6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을 위한 인천경제 주요 현안 과제

2016 제20대 총선 공약을 위한 인천경제 주요 현안과제

2017 인천경제주권 어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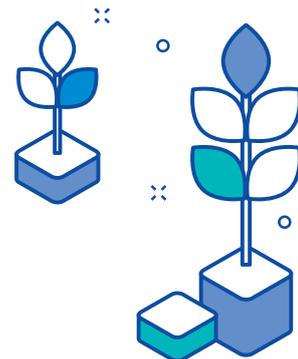
20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후보자에게 드리는 「인천경제 이렇게 가꾸어 주십시오」

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인천지역 후보에게 드리는 인천경제 희망 제안

2021 2021 인천경제주권 어젠다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후보자에게 드리는 「인천경제 이렇게 가꾸어 주십시오」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언을 드리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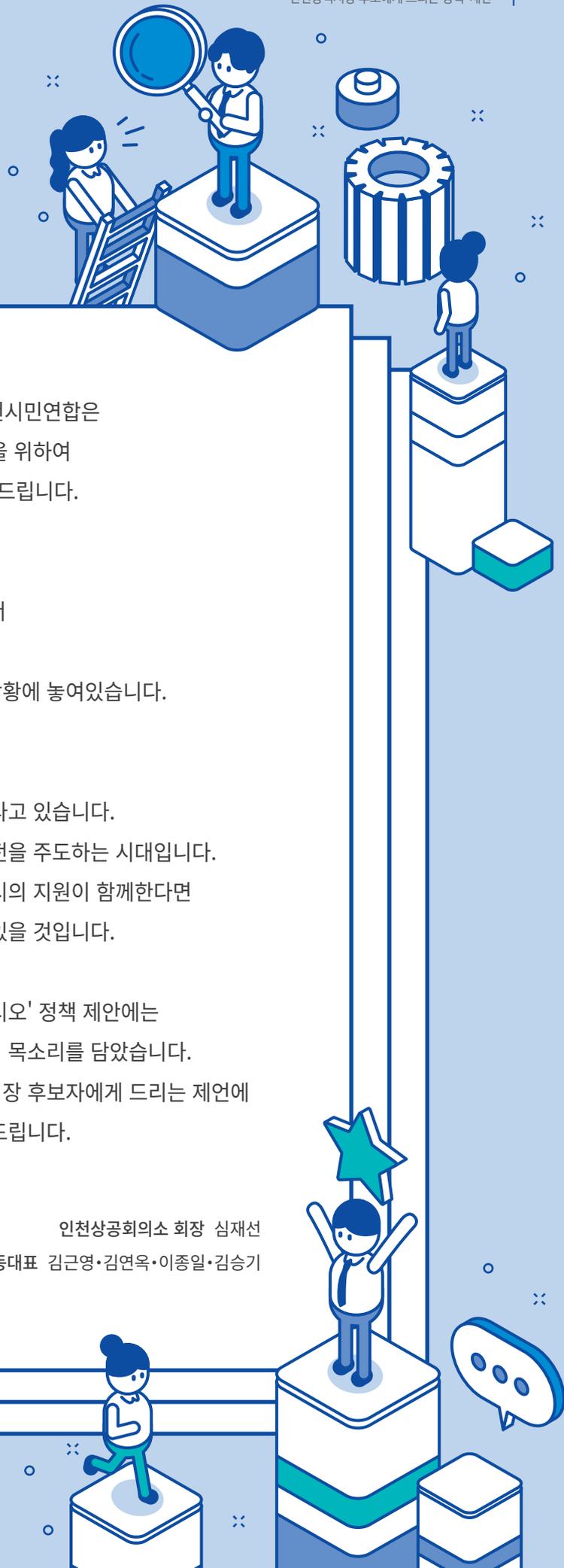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인천의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후보자들에게 제언을 드립니다.

인천지역 기업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 속에서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 등
다가오는 미래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은 무엇보다
기업과 인천 경제를 위한 정책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이 혁신을 통해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기업의 혁신 활동과 인천시민, 인천시의 지원이 함께한다면
지속 발전하는 인천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인천경제 이렇게 가꾸어 주십시오' 정책 제안에는
인천의 기업인과 경제계,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 후보자에게 드리는 제언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정책에 반영 부탁드립니다.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심재선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근영·김연옥·이종일·김승기





현황

튼튼한 산업기반이 있는 인천



전통산업

- 인천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며, 제조업 종사자 역시 감소 추세
-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소재·부품·장비산업은 성숙기에 접어들어 성장 정체
- 내연기관차 중심의 인천 자동차 산업은 기술 고도화 필요

미래산업

- 바이오, 항공, 친환경 재생에너지, 반도체 등 미래산업은 대기업 중심의 외곽이 구조
- 소수 대기업 주도의 미래산업은 지역 중소기업과의 연계 부족으로 부가가치 제고 및 시너지 창출에 한계
- 탄소중립 대응 가속화에 따라 제조기업 부담 증가로 산업 대응 전략 수립 필요

제안

01

노후산단 재생, 뿌리산업, 소부장 산업 육성

02

스마트 제조혁신, 제조업 디지털 전환

03

송도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 제조업의 기반인 뿌리산업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 제조혁신, 제조업 디지털 전환, 노후산단 재생 적극 추진
- 미래산업의 가치사슬 지역 확산을 통해 전통산업과 신산업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산업기반 조성

1-2

튼튼한 산업기반이 있는 인천을 위한 기업인 의견



23.9%

노후산단 재생, 뿌리산업·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 # 남동스마트산단 조성사업
- # 소재·부품·장비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23.5%

스마트 제조혁신, 제조업 디지털 전환

- # 표준제조혁신공정모듈
- # 공정혁신시물레이션센터
- # 혁신데이터센터
- # 스마트물류플랫폼
- # 제조혁신기반구축

10.4%

송도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 # 국가전략산업
- # 바이오 클러스터
- # 바이오 원부자재 지원센터
- # K-바이오 랩허브

8.0%

공공발주 종합계획 수립

- # 지산지소 (지역 생산품 지역 소진)
- # 공공기관의 지역제품 구매확대
- # 지역 업체 가점

7.6%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 # 경제구조 저탄소화
- #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 #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 #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 #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6.5%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 # 투자 중심 창업생태계 조성
- # 혁신창업 활성화
- # 창업기업 성장 촉진
- # 재도전 인프라 확충
- # 유니콘 탄생 생태계 조성

5.9%

자동차 산업 기술 고도화

- # 수소·전기차
- # 자율주행차
- #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
- #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5.5%

친환경 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 # 해상풍력발전
- # 해상풍력 배후항만
- # 수소생산클러스터
- # 부생수소 # 탄소중립
- # 연료전지

5.1%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

- # 인천수출 1위 품목
- # 인천광역시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7%

MRO, UAM 등 공항·항공 산업 육성

- # 인천국제공항
- # 항공기수리·정비·개조(MRO)
- # 공항경제권 # 제2공항철도
- # 도심항공교통(UAM) 첨단산업단지

2-1

현황

기업하기 좋은 인천



경영환경 악화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천 소재 제조업체의 체감경기 지속적으로 악화, 위축된 기업인의 심리가 회복되고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데는 장시간 소요
- 글로벌 공급망 불안, 원자재 수급 난항과 가격 상승, 환율변동 및 금리인상,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중소기업 존립 위기

기업지원 정책 확대 필요

- 타 광역시와 비교 시 인천의 중소기업 지원 예산 규모는 부족한 편으로 기업지원 정책 규모 확대 및 다양화 필요

성장과 혁신의 기업지원정책 필요

- 인천의 중소기업이 미래산업 생태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업종별·맞춤형 기업지원 정책 수립 및 관련 분야 인력 양성 절실
- 환경·안전 규제 강화, 지속가능경영 중요성 증가 등 경영환경 패러다임 변화에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요구

제안

01

정책자금 지원 규모 확대

02

인력지원 사업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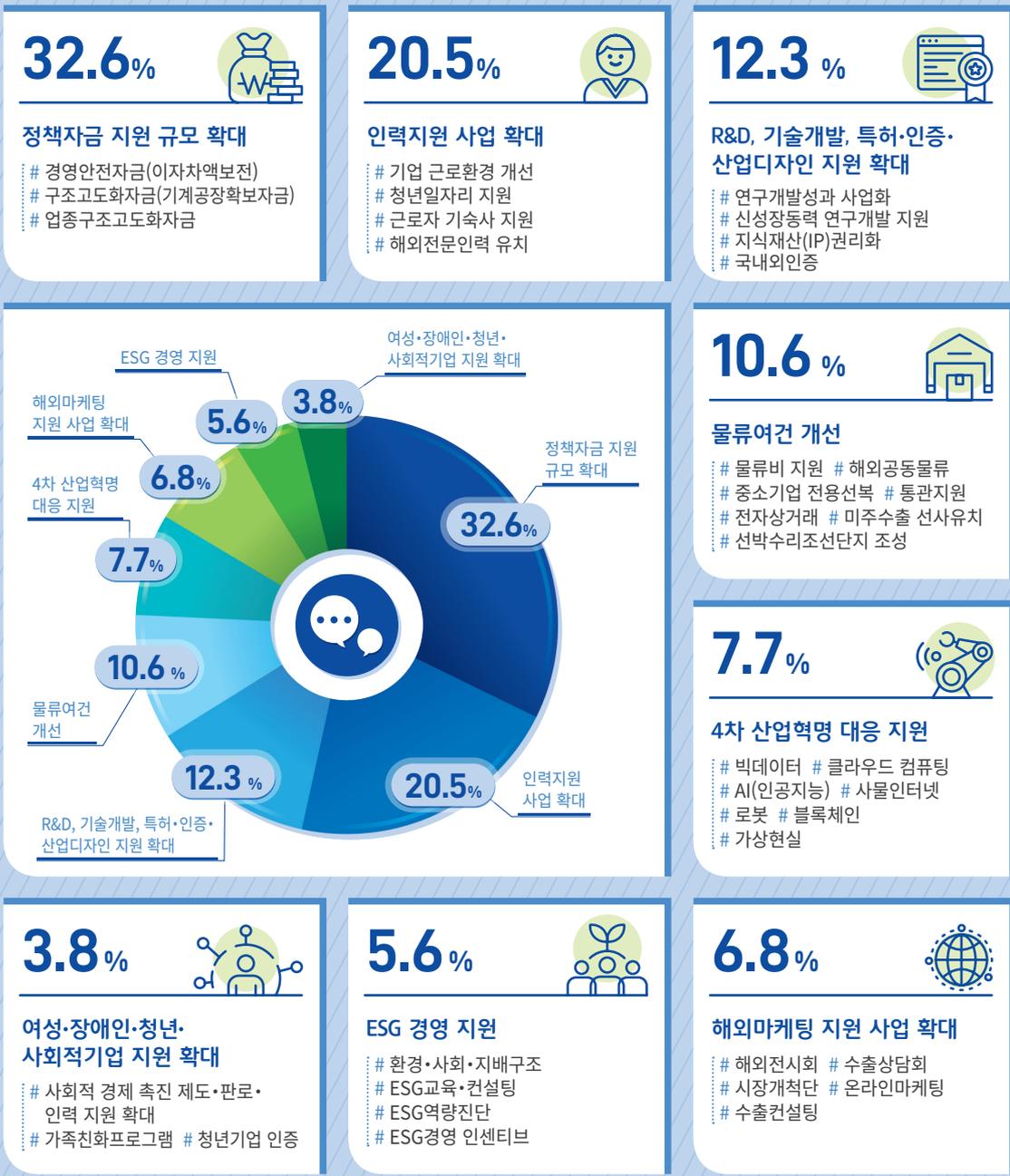
03

R&D, 기술개발, 특허·인증·산업디자인 지원 확대

- 인천지역 중소기업이 현재의 위기 상황을 벗어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인력 지원 등 기업지원 정책 규모 확대 필요
- 4차 산업혁명 대비,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ESG 경영 등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기업지원 정책 수립 절실

2-2

기업하기 좋은 인천을 위한 기업인 의견



32.6%

정책자금 지원 규모 확대

- # 경영안전자금(이자차액보전)
- # 구조고도화자금(기계공장확보자금)
- # 업종구조고도화자금

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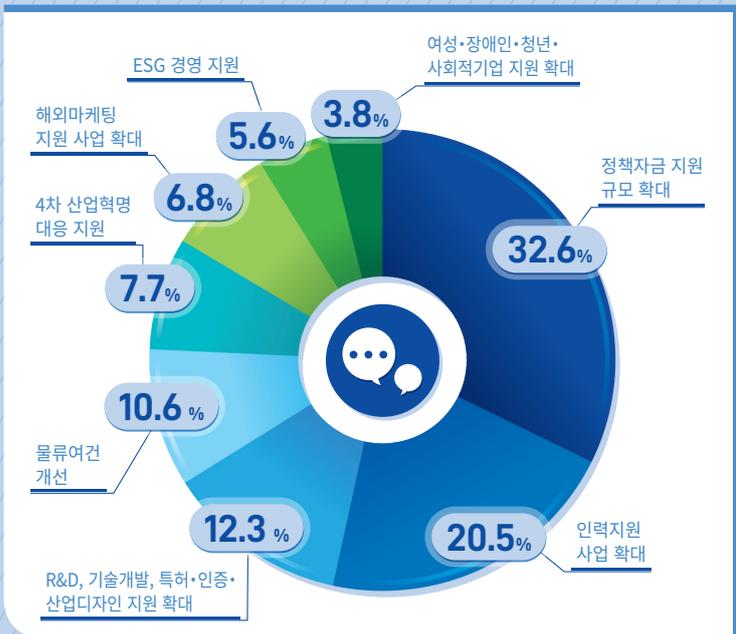
인력지원 사업 확대

- # 기업 근로환경 개선
- # 청년일자리 지원
- # 근로자 기숙사 지원
- # 해외전문인력 유치

12.3%

R&D, 기술개발, 특허·인증·산업디자인 지원 확대

- #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 # 신성장동력 연구개발 지원
- # 지식재산(IP)권리화
- # 국내외인증



10.6%

물류여건 개선

- # 물류비 지원 # 해외공동물류
- # 중소기업 전용선복 # 통관지원
- # 전자상거래 # 미주수출 선사유치
- # 선박수리조선단지 조성

7.7%

4차 산업혁명 대응 지원

- # 빅데이터 # 클라우드 컴퓨팅
- # AI(인공지능) # 사물인터넷
- # 로봇 # 블록체인
- # 가상현실

3.8%

여성·장애인·청년·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 # 사회적 경제 촉진 제도·판로·인력 지원 확대
- # 가족친화프로그램 # 청년기업 인증

5.6%

ESG 경영 지원

- # 환경·사회·지배구조
- # ESG교육·컨설팅
- # ESG역량진단
- # ESG경영 인센티브

6.8%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확대

- # 해외전시회 # 수출상담회
- # 시장개척단 # 온라인마케팅
- # 수출컨설팅

3-1

현황

산업 친화적 인프라가 조성된 인천



산업용지 부족

- 인천지역 기업 10곳 중 6곳은 산업용지 부족으로 고민 중이었으며, 향후 공장 확장 등에 따라 산업용지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용지 수요 및 정책 관련 의견조사 (인천상공회의소, 2020. 12.)
- 원도심의 노후 산업공간이 친환경 주거복합공간으로 개발 예정되어 있어 산업용지는 더욱 부족해지고 있음

물류·교통 인프라 확충 필요

- 인천 지역 경제에서 물류 산업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도시 물류 수요 증가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원활한 화물운송을 위한 화물차 전용 도로, 전용 주차장 등 인프라 부족
-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의 국제 물류 거점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연계 교통망 확충 및 도심 통과 교통량 분산 필요
- 물류산업은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변화, 인천의 물류산업도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인프라 조성 필요

제안

01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착공

02

원도심 재생 및 도시 균형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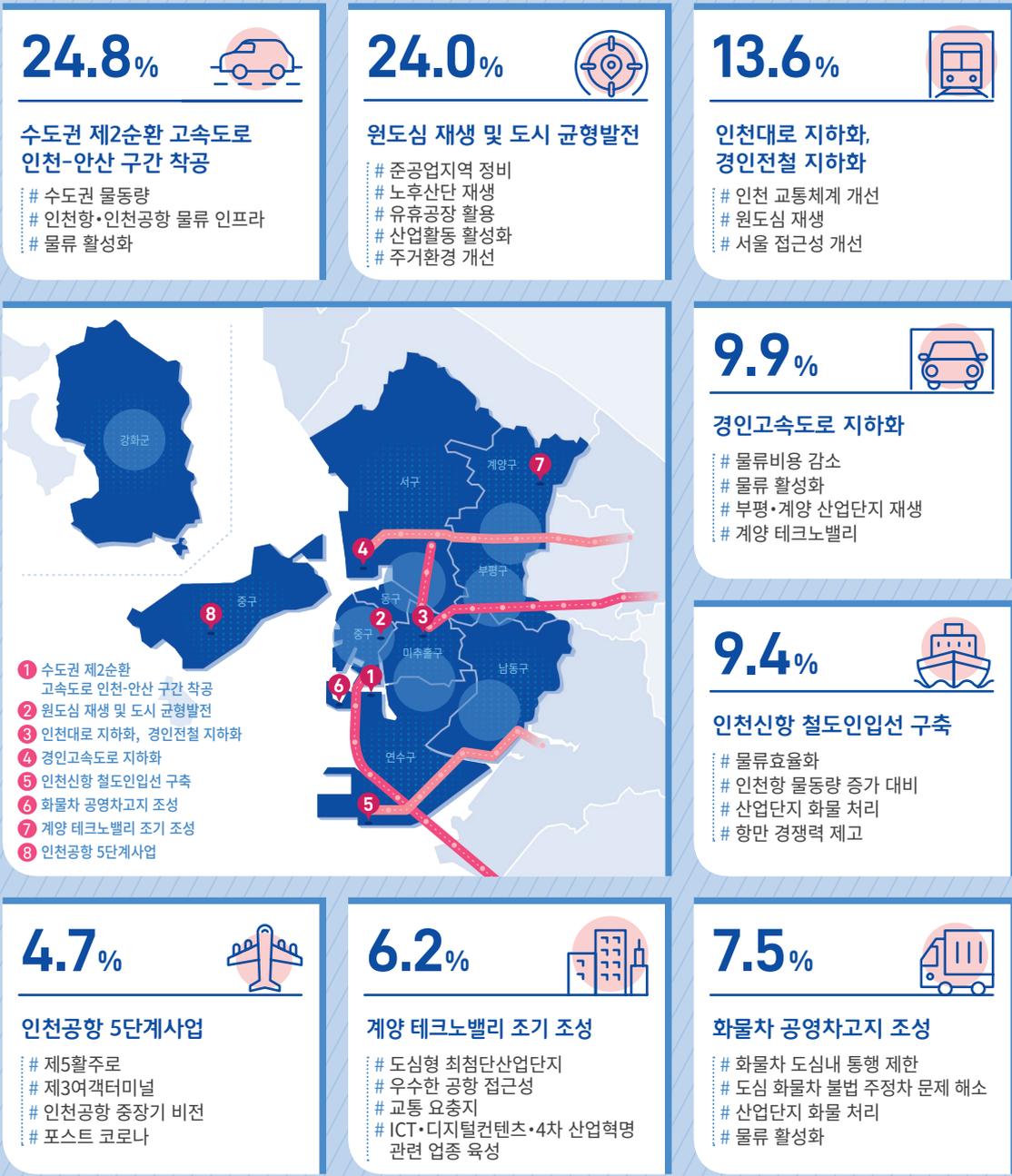
03

인천대로 지하화, 경인전철 지하화

- 산업용지 부족 해소를 위한 노후화된 산업 환경 개선과 산업 용지 공급,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근로환경개선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
-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의 물류 기능 강화를 위한 교통망·물류시설 확충,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프라 조성

3-2

산업 친화적 인프라가 조성된 인천을 위한 기업인 의견



4-1

현황

도시 경쟁력을 갖춘 인천



과도한 수도권 규제로 인한 성장 저해

- 수도권 규제에 따른 공장 신·증설 및 도시 개발 제한 등으로 인천 지역 경제 성장 한계
- 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 정책 관련 역차별 증가로 도시 경쟁력 약화

인천광역시 지방 자치 권한 확대 필요

-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경제자유구역 등 주요 인프라가 인천에 있으나 지역 차원의 정책 권한이 거의 없어 인천과 괴리되어 개발
- 인천지역 소재 공공기관은 인구 대비, 타 시도와 비교하여 매우 부족한 수준임에도, 균형발전을 이유로 공공 기관 이전이 추진되어 인천의 도시 경쟁력 저해 요인으로 작용

제안

01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02

인천경제자유구역 역차별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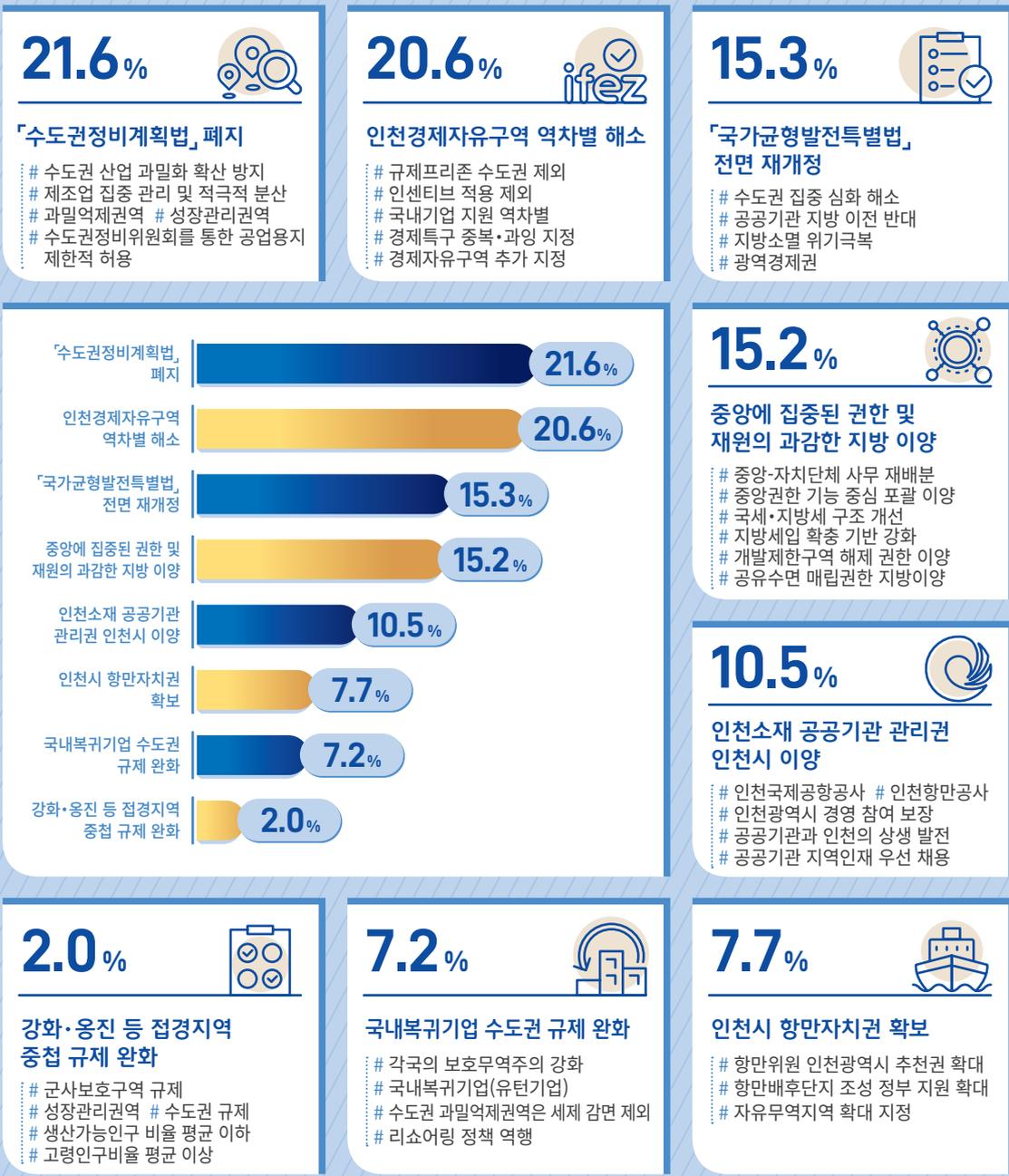
0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면 재개정

- 인천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규제 해소를 위한 인천시의 적극 대응 필요
- 인천의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앙에 집중된 권한 및 재원의 과감한 인천시 이양, 인천 소재 공공기관의 경영권 참여 보장 필요

4-2

도시 경쟁력을 갖춘 인천을 위한 기업인 의견



21.6%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 # 수도권 산업 과밀화 확산 방지
- # 제조업 집중 관리 및 적극적 분산
-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 수도권정비위원회를 통한 공업용지 제한적 허용

20.6%



인천경제자유구역 역차별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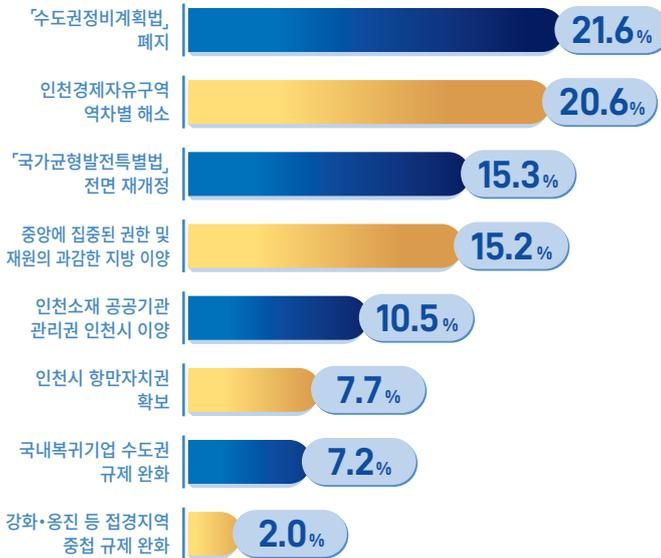
- # 규제프리존 수도권 제외
- # 인센티브 적용 제외
- # 국내기업 지원 역차별
- # 경제특구 중복·과잉 지정
- #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15.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면 재개정

- # 수도권 집중 심화 해소
- #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반대
- # 지방소멸 위기극복
- # 광역경제권



15.2%



중앙에 집중된 권한 및 재원의 과감한 지방 이양

- # 중앙-자치단체 사무 재배분
- # 중앙권한 기능 중심 포괄 이양
- #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 #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
- #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이양
- # 공유수면 매립권한 지방이양

10.5%



인천소재 공공기관 관리권 인천시 이양

- # 인천국제공항공사 # 인천항만공사
- # 인천광역시 경영 참여 보장
- # 공공기관과 인천의 상생 발전
- # 공공기관 지역인재 우선 채용

2.0%



강화·웅진 등 접경지역 중첩 규제 완화

- # 군사보호구역 규제
- # 성장관리권역 # 수도권 규제
- # 생산가능인구 비율 평균 이하
- # 고령인구비율 평균 이상

7.2%



국내복귀기업 수도권 규제 완화

- #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 #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세제 감면 제외
- # 리쇼어링 정책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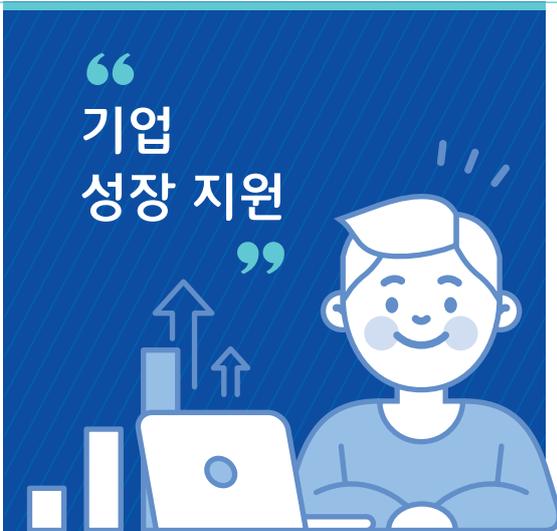
7.7%



인천시 항만자치권 확보

- # 항만위원 인천광역시 추천권 확대
- # 항만배후단지 조성 정부 지원 확대
- #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차기 인천시장에 바라는 점



뿌리기업을 홀대하지 말고 인천시의 근간인 제조업 특히, 뿌리산업의 육성을 강화하고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인천의 육로 관문인 삼산, 계양 등에 첨단 스타트업 기지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폐업한 영세 상공인들이 재활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어느 사업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수출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중소기업자들에게 경영 의욕 고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해 주십시오.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의 지속적 시행, 운전자금의 이차지원 보전사업의 지속 및 확대, 도소매업 경영자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 등이 필요합니다.

인천시 자동차부품업체에 대한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인천시 자동차부품업체는 생산량 감소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지원을 통해 자동차부품업체가 활성화 된다면 많은 인천시민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 본점이나 사업장,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자들에게 국제적 수준의 문화 에티켓에 대한 교육을 시 차원에서 실시해 주시고 인천시의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이를 가산점으로 부여해 주십시오.

인천의 전략적 산업의 지원정책도 필요하지만 소상공인 벤처기업을 위한 기업지원 정책을 위해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유독 인천이 식품제조업에 대한 지원이 너무 열악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제조업 중 식품제조업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업은 사업 아이템이 '식품'이기 때문에 타 사업아이템 대비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음식은 누구나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 지역 식품제조 기업들이 모여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있는 환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으로 이동할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식품제조 기업에 대한 지원을 조금이라도 해주 시어 인천 지역 특산품을 만들 수 있고 알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중국 제조 제품 및 부품의 수입 규제가 없어 20여년에 걸쳐서 국내 기반 제조회사, 부품회사, 기간산업이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러시아 침략전쟁, 코로나19,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하여 원자재 상승, 수급 불균형, 수출용 컨테이너 수급 불안정 등 정말 중요한 이슈가 많으나 이에 대한 즉각적인 정부의 대응은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동값이 많이 상승했을 때와 컨테이너가 심각하게 부족했을 때, 대기업 위주로만 대응이 되어 중소기업은 타격이 심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중국에서 부품이 오지 않거나 러시아산 원자재가 오지 않으면 생산을 못하는 상황에서 현실을 적시하고 2차적인 대안이라도 세우는 인천시장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조업 외에 물류기업에도 많은 지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견기업 육성에 더욱 집중해주셨으면 합니다.

인천시에 많은 기계·장비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수도권 규제로 인한 인천지역 제조업 비중 감소를 막아야 하며, 인천지역에 있는 주요 인프라의 권한과 재원이 인천시로 이양되어 지역 산업발전 및 도시발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해외 이전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제시하고 기업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과 민이 합동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인천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유치 기업의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 인천으로의 이전이 편하고 쉽게해야 합니다.

“ 산업 친화적 도시 계획 ”



원도심 균형 발전이 절실합니다.

연수구나 남동공단에서 서울 강남권으로의 전철 신설 요청

젊은 인재 양성을 위해 젊은 사람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고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출퇴근이 용이하도록 교통 등 인프라 구축·개선이 필요합니다.

인천 시민들 먹여 살리는 산업단지를 이대로 방치하면 안됩니다. 당장 산업단지 걸어가 보시면 그 혼한 보도블록조차 관리가 안돼있습니다. 사람들은 일하러 왔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인도까지 올라와서 주차하는데 그걸 단속합니다. 도로, 보도블록 정비와 산단 내 구석구석 돌 수 있게 버스교통편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기숙사와 공영 주차장도 늘려 주시기 바라며 용적을 제한 해지하고 입주 업종 다변화도 필요합니다.



28년간 제조업체를 경영하고 있으며, 건물·기계 시설 노후화, 매출 증대로 인한 생산시설 부족으로 공장 이전을 검토하고 있으나, 주변 부지가격이 너무 높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포, 강화 산업단지를 고려하였으나, 장기근속 숙련 직원들은 타지역 이전 시 퇴사를 고려한다고 하니 난감합니다. 산업단지를 많이 조성하여 인천은 기업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제조기업을 하기 좋은 도시라고 소문나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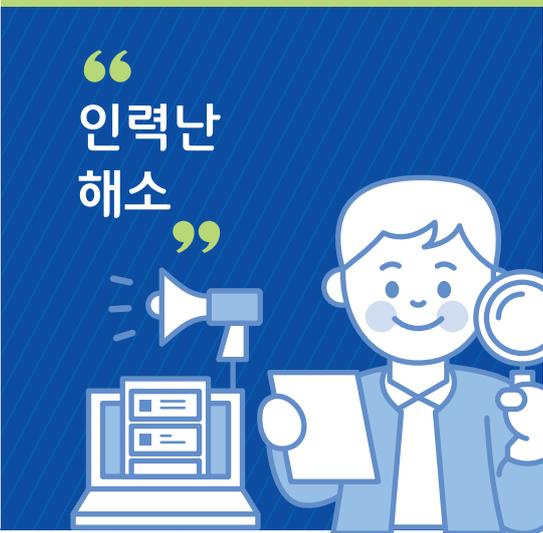
“ 물류 도시 인천 ”



인천은 항구도시입니다. 인천항은 인천경제를 지탱하는 축으로, 인천이 성장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미래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천이 물류 산업 기능을 통해 앞으로도 발전을 지속하려면, 인천항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인구와 도심 팽창에 인천항은 현재 신·구 항만의 역할 교체기에 있습니다. 신항만에 대한 기반시설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구항만에 대한 기능 재구축과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적인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인천광역시는 외국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출입문 중에서 유일하게 국제공항과 신항만을 동시에 보유한 국제물류도시입니다. 국제물류도시에 상응하는 디지털 물류시스템이 인천항에도 필요합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일류 공항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항만은 물류 디지털 시스템이 여전히 미비합니다.

인천은 대한민국의 제2의 국제항구를 보유한 도시로서 항만배후부지들에 대한 안전한 물류환경을 구축하고 기간이 되는 소규모의 기업들에 대하여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가능한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수시로 바뀌는 정책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이 있을 때 사업 추진이 원활하며 성장해나갈 수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기존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 및 이탈방지를 위한 정책이나 사업이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력수급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구인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수립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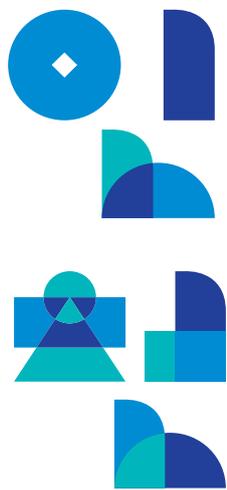
요즘 기술인력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기술인력 수급, 급여지원 등의 지원책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인천이 가장 열악하다고 평가받는데 이젠 가장 잘 나가는 수도권이라는 평가 받고 싶습니다. 인천에서 기업하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자부심 느낀다고 느끼고 싶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해제 및 과도한 서식 요구 등의 행정 편의적인 관리를 대폭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설문조사 및 관공서의 과도한 서류요구로 기업의 관리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민의 당당한 대표로서 인천시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펼쳐주길 바랍니다. 중앙정부에 인천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합니다. 항만과 공항이라는 좋은 여건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양질의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매년 다른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에 의해 흔들리지 않길 바라며, 인천시민을 위한 인천시장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인천경제
이렇게 가꾸어 주십시오